

〈 코로나發 교육격차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〉

2020.9.18. 사교육걱정없는세상

■ 설문 개요

- 설문 기간: 2020.9.8.(화) ~9.15(화), 7일간
- 설문 방법: 온라인 설문조사
- 주요 내용: 코로나發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도 및 사교육 인식, 원격수업 개선방안
- 응답자 정보: 총 1,501명(동일응답 중복제출분은 제외)
 - (응답자 구성) 학부모 1,091명(72.7%), 교사 275명(18.3%), 학생 51명(3.4%), 일반시민 84명(5.6%)
 - (학부모 구성) 영유아 209명(11.0%), 초등학생 813명(42.9%), 중학생 457명(24.1%), 고등학생 272명(14.3%), 대학생 이상 146명(7.7%)

■ 설문 결과

【1. 원격수업 만족도】

- 2학기 진행되고 있는 학교 원격수업에 대해 **63.0%는 ‘불만족’**, **37.0%는 ‘만족’** 으로 응답함.
- <불만족 수치가 높은 주요 항목>은 원격수업에서의 선생님/친구와의 소통, 질의응답/피드백/학습 동기부여, 원격수업에서의 평가 방식/횟수, 원격수업에 대한 집중도 순으로 나타남.
- 원격수업에서의 이해도/난이도, 학습량/과제량에 대한 불만족 수치는 상대적으로 낮음.

	만족	불만족	매우 만족	대체로 만족	대체로 불만족	매우 불만족
[전체] 2학기 원격수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	37.0% (555명)	63.0% (946명)	3.2% (48명)	33.8% (507명)	46.6% (699명)	16.5% (247명)
-원격수업에 대한 집중도	33.0% (495명)	67.0% (1,006명)	2.8% (42명)	30.2% (453명)	47.2% (708명)	19.9% (298명)
-원격수업에 대한 이해도/난이도	45.5% (683명)	54.5% (818명)	4.0% (60명)	41.5% (623명)	42.2% (633명)	12.3% (185명)
-원격수업에서의 학습량/과제량	42.6% (640명)	57.4% (861명)	3.9% (58명)	38.8% (582명)	41.1% (617명)	16.3% (244명)
-원격수업에서의 질의응답/피드백/학습 동기부여	24.3% (365명)	75.7% (1,136명)	4.0% (60명)	20.3% (305명)	42.2% (634명)	33.4% (502명)
-원격수업에서의 선생님/친구와의 소통	21.4% (321명)	78.6% (1,180명)	3.5% (52명)	17.9% (269명)	40.2% (604명)	38.4% (576명)
-원격수업에서의 평가 방식/횟수	28.0% (421명)	72.0% (1,080명)	3.2% (48명)	24.9% (373명)	46.1% (692명)	25.8% (388명)

- 2학기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도 수치를 학부모와 교사 간에 비교한 결과, 학부모는 전반적으로 불만족도(68.2%)가 만족도보다 더 높았으나, 교사는 만족도(50.2%)가 불만족도보다 더 높았음. 또한 모든 항목에서 교사에 비해 학부모의 불만족 수치가 높게 나타남.
- 학부모는 모든 항목에서 불만족도가 만족도보다 높았던 반면, 교사는 원격수업에 대한 이해도/난이도(54.9%), 원격수업에서의 학습량/과제량(57.8%)에서 과반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.
- 원격수업에 대한 집중도에서 학부모(31.2%)와 교사의 만족도(38.2%) 차이가 가장 근소하게 나타남.

[학부모] 1,091명	만족	불만족	매우 만족	대체로 만족	대체로 불만족	매우 불만족
2학기 원격수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	31.8% 347명	68.2% 744명	2.0% 22명	29.8% 325명	47.8% 522명	20.3% 222명
-원격수업에 대한 집중도	31.2% 340명	68.8% 751명	2.3% 25명	28.9% 315명	46.7% 510명	22.1% 241명
-원격수업에 대한 이해도/난이도	42.1% 459명	57.9% 632명	2.8% 31명	39.2% 428명	43.6% 476명	14.3% 156명
-원격수업에서의 학습량/과제량	37.5% 409명	62.5% 682명	3.0% 33명	34.5% 376명	43.7% 477명	18.8% 205명
-원격수업에서의 질의응답/피드백/학습 동기부여	18.4% 201명	81.6% 890명	3.4% 37명	15.0% 164명	42.3% 461명	39.3% 429명
-원격수업에서의 선생님/친구와의 소통	16.6% 181명	83.4% 910명	2.5% 27명	14.1% 154명	39.5% 431명	43.9% 479명
-원격수업에서의 평가 방식/횟수	24.1% 263명	75.9% 828명	2.7% 30명	21.4% 233명	45.1% 492명	30.8% 336명

[교사] 275명	만족	불만족	매우 만족	대체로 만족	대체로 불만족	매우 불만족
2학기 원격수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	50.2% 138명	49.8% 137명	4.4% 12명	45.8% 126명	44.0% 121명	5.8% 16명
-원격수업에 대한 집중도	38.2% 105명	61.8% 170명	1.8% 5명	36.4% 100명	49.5% 136명	12.4% 34명
-원격수업에 대한 이해도/난이도	54.9% 151명	45.1% 124명	4.7% 13명	50.2% 138명	39.6% 109명	5.5% 15명
-원격수업에서의 학습량/과제량	57.8% 159명	42.2% 116명	3.6% 10명	54.2% 149명	34.2% 94명	8.0% 22명
-원격수업에서의 질의응답/피드백/학습 동기부여	36.7% 101명	63.3% 174명	4.4% 12명	32.4% 89명	49.1% 135명	14.2% 39명
-원격수업에서의 선생님/친구와의 소통	31.6% 87명	68.4% 188명	28.4% 78명	28.4% 78명	46.2% 127명	22.2% 61명
-원격수업에서의 평가 방식/횟수	33.8% 93명	66.2% 182명	1.8% 5명	32.0% 88명	52.4% 144명	13.8% 38명

○ 학교급별로 <학부모 불만족 수치가 높은 항목>을 분석한 결과,

- 원격수업에서의 ‘질의응답/피드백/학습 동기부여’에 대한 학부모 불만족 수치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높아졌으며, 영유아(76.6%), 초등(79.3%) 대비 **중등(83.4%)**과 **고등(83.5%)**의 불만족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았음.
- 원격수업에서의 ‘선생님/친구와의 소통’에 대한 학부모 불만족 수치는 초등(82.7%), 중등(82.5%), 고등(82.4%) 등 **모든 학교급에서 공통적으로 높았음.**
- 원격수업에서의 ‘평가 방식/횟수’에 대한 학부모 불만족 수치는 중등(77.9%)-고등(76.8%)-초등(75.3%) 순으로 높았음.

○ 원격수업에서 자녀의 <집중도와 이해도/난이도>에 대한 학부모 불만족 수치를 분석한 결과,

- 모든 학교급에서 ‘이해도/난이도’보다 ‘집중도’에 대한 불만족 수치가 높게 나타남.
- 원격수업에 대한 집중도의 불만족 수치는 고등(77.2%)-중등(72.2%)-영유아(67.9%)초등(65.2%)-대학(58.9%)순으로 높았고, 원격수업에 대한 이해도/이해도의 불만족 수치는 고등(66.2%)-중등(61.5%)-초등(54.6%)-대학(52.7%)-영유아(52.2%)순으로 높았음.

- 보호자의 도움 없이 원격수업이 어려운 영유아/초등 학부모보다 스스로 원격수업이 가능한 고등/중학생 학부모가 원격수업 집중도나 이해도/난이도에 대해 더 높은 불만족 수치를 보임.

(영유아 학부모) 209명	만족	불만족	매우 만족	대체로 만족	대체로 불만족	매우 불만족
2학기 원격수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	36.4% 76명	63.6% 133명	2.9% 6명	33.5% 70명	44.5% 93명	19.1% 40명
-원격수업에 대한 집중도	32% 67명	67.9% 142명	3.3% 7명	28.7% 60명	43.5% 91명	24.4% 51명
-원격수업에 대한 이해도/난이도	47.8% 100명	52.2% 109명	4.3% 9명	43.5% 91명	36.4% 76명	15.8% 33명
-원격수업에서의 학습량/과제량	44.5% 93명	55.5% 116명	3.8% 8명	40.7% 85명	35.4% 74명	20.1% 42명
-원격수업에서의 질의응답/피드백/학습 동기부여	23.4% 49명	76.6% 160명	3.3% 7명	20.1% 42명	35.9% 75명	40.7% 85명
-원격수업에서의 선생님/친구와의 소통	20.1% 42명	79.9% 167명	2.4% 5명	17.7% 37명	31.1% 65명	48.8% 102명
-원격수업에서의 평가 방식/횟수	27.2% 57명	72.8% 152명	1.4% 3명	25.8% 54명	35.9% 75명	36.8% 77명

(초등학생 학부모) 813명	만족	불만족	매우 만족	대체로 만족	대체로 불만족	매우 불만족
2학기 원격수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	34.7% 282명	65.3% 531명	2.2% 18명	32.5% 264명	45.4% 369명	19.9% 162명
-원격수업에 대한 집중도	34.8% 283명	65.2% 530명	2.5% 20명	32.3% 263명	44.0% 358명	21.2% 172명
-원격수업에 대한 이해도/난이도	45.6% 371명	54.6% 442명	3.3% 27명	42.3% 344명	41.2% 335명	13.2% 107명
-원격수업에서의 학습량/과제량	41.3% 336명	58.7% 477명	3.3% 27명	38.0% 309명	40.2% 327명	18.5% 150명
-원격수업에서의 질의응답/피드백/학습 동기부여	20.7% 168명	79.3% 645명	3.8% 31명	16.9% 137명	40.8% 332명	38.5% 313명
-원격수업에서의 선생님/친구와의 소통	17.3% 140명	82.7% 673명	3.0% 24명	14.3% 116명	37.5% 305명	45.3% 368명
-원격수업에서의 평가 방식/횟수	24.7% 201명	75.3% 612명	2.7% 22명	22.0% 179명	44.5% 362명	30.8% 250명

(중학생 학부모) 457명	만족	불만족	매우 만족	대체로 만족	대체로 불만족	매우 불만족
2학기 원격수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	31.3% 143명	68.7% 314명	2.4% 11명	28.9% 132명	49.2% 225명	19.5% 89명
-원격수업에 대한 집중도	27.8% 127명	72.2% 330명	1.3% 6명	26.5% 121명	50.8% 232명	21.4% 98명
-원격수업에 대한 이해도/난이도	38.5% 176명	61.5% 281명	2.4% 11명	36.1% 165명	46.2% 211명	15.3% 70명
-원격수업에서의 학습량/과제량	33.0% 151명	67.0% 306명	2.2% 10명	30.9% 141명	48.8% 223명	18.2% 83명
-원격수업에서의 질의응답/피드백/학습 동기부여	16.6% 76명	83.4% 381명	2.0% 9명	14.7% 67명	49.0% 224명	34.4% 157명
-원격수업에서의 선생님/친구와의 소통	17.5% 80명	82.5% 377명	2.4% 11명	15.1% 69명	46.0% 210명	36.5% 167명
-원격수업에서의 평가 방식/횟수	22.1% 101명	77.9% 356명	2.2% 10명	19.9% 91명	51.2% 234명	26.7% 122명

(고등학생 학부모) 272명	만족	불만족	매우 만족	대체로 만족	대체로 불만족	매우 불만족
2학기 원격수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	30.1% 82명	69.9% 190명	1.1% 3명	29.0% 79명	46.7% 127명	23.2% 63명
-원격수업에 대한 집중도	22.8% 62명	77.2% 210명	1.1% 3명	21.7% 59명	49.3% 134명	27.9% 76명
-원격수업에 대한 이해도/난이도	33.8% 92명	66.2% 180명	1.5% 4명	32.4% 88명	47.4% 129명	18.8% 51명
-원격수업에서의 학습량/과제량	32.4% 88명	67.6% 184명	0.7% 2명	31.6% 86명	43.8% 119명	23.9% 65명
-원격수업에서의 질의응답/피드백/학습 동기부여	16.5% 45명	83.5% 227명	0.4% 1명	16.2% 44명	44.9% 122명	38.6% 105명
-원격수업에서의 선생님/친구와의 소통	17.6% 48명	82.4% 224명	0.7% 2명	16.9% 46명	43.8% 119명	38.6% 105명
-원격수업에서의 평가 방식/횟수	23.2% 63명	76.8% 209명	0.4% 1명	22.8% 62명	46.7% 127명	30.1% 82명

(대학생 이상 학부모) 146명	만족	불만족	매우 만족	대체로 만족	대체로 불만족	매우 불만족
2학기 원격수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	41.8% 61명	58.2% 85명	2.1% 3명	39.7% 58명	45.9% 67명	12.3% 18명
-원격수업에 대한 집중도	41.1% 60명	58.9% 86명	3.4% 5명	37.7% 55명	44.5% 65명	44.5% 65명
-원격수업에 대한 이해도/난이도	47.3% 69명	52.7% 77명	2.7% 4명	44.5% 65명	45.2% 66명	7.5% 11명
-원격수업에서의 학습량/과제량	42.5% 62명	57.5% 84명	4.1% 6명	38.4% 56명	44.5% 65명	13.0% 19명
-원격수업에서의 질의응답/피드백/학습 동기부여	31.5% 46명	68.5% 100명	4.8% 7명	26.7% 39명	43.2% 63명	25.3% 37명
-원격수업에서의 선생님/친구와의 소통	26.0% 38명	74.0% 108명	3.4% 5명	22.6% 33명	40.4% 59명	33.6% 49명
-원격수업에서의 평가 방식/횟수	39.0% 57명	61.0% 89명	4.8% 7명	34.2% 50명	43.2% 63명	17.8% 26명

○ <원격수업 만족도>와 관련하여 주요한 기타 의견은 다음과 같음.

- ✓ (일방향 수업 불만) 유튜브, EBS 링크주소만 단순 제공하는 콘텐츠활용 수업이 대부분으로 학습 집중도나 효과가 떨어짐.
- ✓ (개별적 소통 부족) 원격수업 과정에서 출석/진도율 점검 외에 학생과의 개별 소통이 부족함. 개별 수준에 대한 고려 없는 일방적 과제 제시 및 과제 피드백이 없는 점 등 교사-학생 간 1:1 소통 부재 및 학습적 피드백 부족에 대한 불만족 의견이 다수.
- ✓ (이해도 파악 미진) 원격수업 후 학습 진도와 양은 늘었는데, 이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이 잘 안되고 있음.
- ✓ (학교/교사별 편차) 학급당 학생수, 기기 보급률 등 학교환경이나 교사/과목별 원격수업의 질 편차가 큼.

【2. 원격수업에 의한 사교육 인식】

○ 원격수업의 어려움 및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<사교육(학원,인강,과외)의 필요성>에 대해 79.1%가 ‘필요하다’ , 20.9%가 ‘필요 없다’ 고 응답함.

○ 원격수업 전후 전반적인 <사교육 참여율의 변화 체감>에 대해 48.3%는 ‘늘었다’ , 42.7%는 ‘비슷하다’ , 9.0%는 ‘줄었다’ 고 응답함.

- 원격수업으로 인해 10명 중 8명은 ‘사교육이 필요하다’ 고 응답했고, 원격수업 이전과 비교 시 10명 중 9명은 사교육 참여율이 늘었거나 비슷한 것으로 체감한다고 응답함.

[전체]	필요하다		필요 없다		매우 필요	다소 필요	거의 필요 없음	전혀 필요 없음							
	원격수업에 의한 사교육 필요성	79.1%	20.9%	28.2%	50.9%	15.2%	5.7%	(1,187명)	(314명)	(423명)	(764명)	(228명)	(86명)		
원격수업 전후 사교육 참여율의 변화 체감	늘었다	비슷하다	줄었다	매우 늘었음	다소 늘었음	비슷함	다소 줄었음	매우 줄었음							
	48.3%	42.7%	9.0%	16.9%	31.4%	42.7%	6.6%	2.4%	(725명)	(641명)	(135명)	(254명)	(471명)	(641명)	(99명)

○ 원격수업에 의한 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‘필요하다’ 는 응답이 교사(68.3%)보다 학부모(83.0%)에서 더 높게 나타남.

- 원격수업에 의한 사교육이 ‘매우 필요하다’ 는 적극적 응답이 학부모(33.0%) 집단에서 매우 높게 나타남.
- 원격수업에 전후 사교육 참여율의 변화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는 비교적 일치된 응답 양상을 보인 반면, 원격수업에 의한 사교육 필요성은 학부모(83.0%)가 교사(68.3%)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임.

[학부모] 1,091명	필요하다		필요 없다		매우 필요	다소 필요	거의 필요 없음	전혀 필요 없음							
	원격수업에 의한 사교육 필요성	83.0%	17.0%	33.0%	50.0%	11.5%	5.4%	906명	185명	360명	546명	126명	59명		
원격수업 전후 사교육 참여율의 변화 체감	늘었다	비슷하다	줄었다	매우 늘었음	다소 늘었음	비슷함	다소 줄었음	매우 줄었음							
	48.3%	42.1%	9.6%	18.7%	29.6%	42.1%	6.4%	3.2%	527명	459명	105명	204명	323명	459명	70명

[교사] 275명	필요하다		필요 없다		매우 필요	다소 필요	거의 필요 없음	전혀 필요 없음							
	원격수업에 의한 사교육 필요성	68.3%	31.7%	13.8%	54.5%	25.5%	6.2%	188명	87명	38명	150명	70명	17명		
원격수업 전후 사교육 참여율의 변화 체감	늘었다	비슷하다	줄었다	매우 늘었음	다소 늘었음	비슷함	다소 줄었음	매우 줄었음							
	48.7%	45.8%	5.5%	13.1%	35.6%	45.8%	5.5%	0.0%	134명	126명	15명	36명	98명	126명	15명

- 학부모의 <원격수업에 의한 사교육 인식>을 자녀의 학교급에 따라 분석한 결과,
- 원격수업에 의한 사교육이 ‘필요하다’ 고 응답한 학부모는 **중등(88.6%)**-**고등(84.2%)**-**초등(82.7%)**-**영유아(78.0%)**-**대학생 이상(74.7%)** 순으로 나타남.
 - 원격수업 전후 사교육 참여율이 ‘**비슷하다**+**늘었다**’ 는 학부모 응답은 **고등(93.4%)**-**중등(92.8%)**-**초등(90.9%)**-**영유아(89.4%)**-**대학생 이상(85.0%)** 순으로 나타남.
 - 원격수업 전후 사교육 참여율이 ‘**줄었다**’ 는 학부모 응답은 **영유아(10.5%)**-**초등(9.1%)**-**중등(7.2%)**-**고등(6.6%)** 순으로 비교적 **학교급이 낮을수록 안전을 우려해 사교육 참여를 줄인 것**으로 인식하고 있음.

(영유아 학부모) 209명 원격수업에 의한 사교육 필요성	필요하다		필요 없다		매우 필요	다소 필요	거의 필요 없음	전혀 필요 없음
	78.0%		22.0%		28.2%	49.8%	17.7%	4.3%
		163명	46명		59명	104명	37명	9명
원격수업 전후 사교육 참여율의 변화 체감	늘었다	비슷하다	줄었다	매우 늘었음	다소 늘었음	비슷함	다소 줄었음	매우 줄었음
	50.2%	39.2%	10.5%	18.2%	32.1%	39.2%	6.2%	4.3%
		105명	82명	22명	38명	67명	82명	13명
							13명	9명
(초등학생 학부모) 813명 원격수업에 의한 사교육 필요성	필요하다		필요 없다		매우 필요	다소 필요	거의 필요 없음	전혀 필요 없음
	82.7%		17.3%		32.7%	49.9%	12.1%	5.3%
		672명	141명		266명	406명	98명	43명
원격수업 전후 사교육 참여율의 변화 체감	늘었다	비슷하다	줄었다	매우 늘었음	다소 늘었음	비슷함	다소 줄었음	매우 줄었음
	50.2%	40.7%	9.1%	19.4%	30.8%	40.7%	5.9%	3.2%
		408명	331명	74명	158명	250명	331명	48명
							48명	26명
(중학생) 457명 원격수업에 의한 사교육 필요성	필요하다		필요 없다		매우 필요	다소 필요	거의 필요 없음	전혀 필요 없음
	88.6%		11.4%		36.8%	51.9%	7.7%	3.7%
		405명	52명		168명	237명	35명	17명
원격수업 전후 사교육 참여율의 변화 체감	늘었다	비슷하다	줄었다	매우 늘었음	다소 늘었음	비슷함	다소 줄었음	매우 줄었음
	51.4%	41.4%	7.2%	21.2%	30.2%	41.4%	5.9%	1.3%
		235명	189명	33명	97명	138명	189명	27명
							27명	6명
(고등학생) 272명 원격수업에 의한 사교육 필요성	필요하다		필요 없다		매우 필요	다소 필요	거의 필요 없음	전혀 필요 없음
	84.2%		15.8%		39.0%	45.2%	11.0%	4.8%
		229명	43명		106명	123명	30명	13명
원격수업 전후 사교육 참여율의 변화 체감	늘었다	비슷하다	줄었다	매우 늘었음	다소 늘었음	비슷함	다소 줄었음	매우 줄었음
	45.2%	48.2%	6.6%	19.9%	25.4%	48.2%	4.8%	1.8%
		123명	131명	18명	54명	69명	131명	13명
							13명	5명
(대학생 이상) 146명 원격수업에 의한 사교육 필요성	필요하다		필요 없다		매우 필요	다소 필요	거의 필요 없음	전혀 필요 없음
	74.7%		25.3%		21.9%	52.7%	18.5%	6.8%
		109명	37명		32명	77명	27명	10명
원격수업 전후 사교육 참여율의 변화 체감	늘었다	비슷하다	줄었다	매우 늘었음	다소 늘었음	비슷함	다소 줄었음	매우 줄었음
	41.8%	43.2%	15.1%	11.6%	30.1%	43.2%	11.6%	3.4%
		61명	63명	22명	17명	44명	63명	17명
							17명	5명

○ <원격수업에 의한 사교육 인식>과 관련하여 주요한 기타 의견은 다음과 같음.

- ✓ (개인맞춤식 교육) 학교 원격수업에서 개별적 학습수준이나 이해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개인맞춤식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낌.
- ✓ (참여형 수업방식) 사교육 이탈을 막으려면 학교 원격수업이 화면만 쳐다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질문이나 발표, 함께 문제를 풀어보는 등 학생이 적극 참여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함.
- ✓ (배우지 않은 내용 출제) 학교 원격수업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는 등 수업 내용과 시험 내용 간의 괴리감이 있어 사교육의 필요성을 느낌.
- ✓ (원격 사교육) 거리두기를 위해 원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교육은 효과가 없을 거라고 느낌.

【3. 원격수업의 개선점】

- 원격수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중시되어야 할 점으로 43.9%가 ‘교사-학생 간 개별 피드백 및 소통이 이루어지는 수업’ 을 압도적으로 꼽았음.
- 뒤이은 개선점으로 실시간 수업(22.4%)-토론·발표 방식의 학생중심수업(16.8%)-교사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 시청(9.5%)-외부 콘텐츠 활용수업(7.5%)순으로 응답함.

-교사-학생 간 개별 피드백 및 소통이 이루어지는 수업	43.9% (1,146명)
-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수업	22.4% (583명)
-토론·발표 방식의 학생 중심 수업	16.8% (438명)
-교사가 직접 녹화/제작한 원격수업 콘텐츠를 시청하는 수업	9.5% (247명)
-EBS 및 우수 교·강사의 원격수업 콘텐츠를 시청하는 수업	7.5% (195명)

*최대 2가지 중복선택 가능 문항임

- 원격수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 방안은 학부모와 교사 간에 일치된 순위로 응답하였음.

	[학부모] (n=1927)	[교사] (n=456)
-교사-학생 간 개별 피드백 및 소통이 이루어지는 수업	44.2% 852명	46.9% 214명
-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수업	23.7% 457명	19.1% 87명
-토론·발표 방식의 학생 중심 수업	15.9% 306명	18.4% 84명
-교사가 직접 녹화/제작한 원격수업 콘텐츠를 시청하는 수업	8.6% 165명	9.4% 43명
-EBS 및 우수 교·강사의 원격수업 콘텐츠를 시청하는 수업	7.6% 147명	6.1% 28명

*최대 2가지 중복선택 가능 문항임

- <원격수업의 개선점>과 관련하여 주요한 기타 의견은 다음과 같음.
- ✓ (교육과정 조정) 재난 상황에서 핵심 성취기준만 다룰 수 있도록 교육과정 조정이 필요함.
- ✓ (실시간 수업) 원격수업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 일과시간과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이 필요함.
- ✓ (교사 피드백) 원격수업에 과정에서 단답식 평가만이 아닌 학생의 생각을 나눌 수 있어야 함. 외부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이라도 수업 전후에 교과교사의 피드백이 보장되어야 함.
- ✓ (실기수업 개선) 원격으로 불가능한 고등 실기수업의 경우 방치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함.
- ✓ (지역사회 연계)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학교 외부 수업을 적극 검토해야 함.

【4. 원격수업의 지원책】

○ 그동안 원격수업에서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책으로 원격수업을 위한 인프라 확대(23.5%), 보조교사의 원격학습 지원(20.9%), 학급/교사당 학생수 적정화(19.6%), 평가방식 개선(19.1%), 재난 시 교육과정 통한 진도부담 완화(17.0%)순으로 응답 비율 간 차이가 근소함.

-원격수업을 위한 학습공간 및 디지털 기기 등 인프라 확대	23.5% (614명)
-보조교사(멘토,튜터,퇴직교원 등)를 통한 원격학습 지원	20.9% (546명)
-학급당/교사당 학생수 적정화	19.6% (513명)
-원격수업에 대한 평가방식 개선	19.1% (499명)
-재난 시 교육과정의 양 적정화를 통한 진도부담 완화	17.0% (446명)

*최대 2가지 중복선택 가능 문항임

○ 원격수업 지원책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 간의 유의미한 선호도 차이를 보임.

- 원격수업의 지원책으로 ‘원격수업을 위한 학습공간/디지털 기기 등 인프라 확대’ 는 학부모와 교사에게서 고루 높은 선호도를 보임.
- 그러나 ‘보조교사의 원격수업 지원’ 의 경우 학부모 응답에서 가장 높은 순위(23.5%)인 반면, 교사로부터는 가장 낮은 응답 순위(11.3%)인 것을 통해 보조교사 활용에 대한 이견이 드러남.
- 한편 ‘학급당/교사당 학생수 적정화’ 의 경우 학부모 응답(18.7%)에 비해 교사 응답(27.1%)에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냄.

	[학부모] (n=1888)	[교사] (n=494)
-원격수업을 위한 학습공간 및 디지털 기기 등 인프라 확대	21.3% 402명	27.9% 138명
-보조교사(멘토,튜터,퇴직교원 등)를 통한 원격학습 지원	23.5% 443명	11.3% 56명
-학급당/교사당 학생수 적정화	18.7% 353명	27.1% 134명
-원격수업에 대한 평가방식 개선	19.7% 372명	16.0% 79명
-재난 시 교육과정의 양 적정화를 통한 진도부담 완화	16.8% 318명	17.6% 87명

*최대 2가지 중복선택 가능 문항임

○ <원격수업의 지원책>과 관련하여 주요한 기타 의견은 다음과 같음.

- ✓ (담임교사 역할) 보조교사처럼 별도의 외부교사를 배치하기보다 담임교사의 학습피드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.
- ✓ (원격수업 기기) 원격수업 전후 학습 이외에 게임, 유튜브 시청으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습 이외의 활동이 물리적으로 차단되는 기기가 필요함.
- ✓ (동기부여 콘텐츠) 원격수업 콘텐츠뿐 아니라, 원격수업 참여에 흥미와 동기를 부여하는 콘텐츠 제작 지원이 필요함.
- ✓ (교원연수 확대) 원격수업에 대한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가 필요함.